

읽을수록 향기로운 맛느끼는 고전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나미씨가 뽑은 《한중록》



“혜경궁 홍씨는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진 고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남편·시아버지·아들을 앞세웠습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씨는 이성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사랑의 독은 왜 달콤할까》,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 등을 펴낸 이나미씨(38)가 서가에서 선뜻 뽑아낸 책은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84년 초반 삼중당 문고에서 발행해 세월의 부단함이 누렇게 스며든 책이다.

“고등학교 때 혼자 재미있어 하며 고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중록》도 교과서에 실린 고문을 외우곤 하던 그 시절에 처음 대했습니다.”

《한중록》은 비교적 원문에 충실한 책으로 고어와 사어가 많은 것이 그의 손길을 끄는 요소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혜경궁 홍씨의 삶이었다.

“혜경궁 홍씨는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 손에 굶어죽는 남편을 지켜보아야 했고,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결코 지울 수 없는 한을 품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혜경궁 홍씨는 이성적인 기록을 남기려 노력했다. 행간마다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홍씨의 노력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더욱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읽으면서 그는 홍씨의 입장을 새삼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아직 글을 쓸 공간조차 없어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도 종부요, 아내라는 위치가 그러네요.”

신세대 여성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겠지만 70년대 학번이며, 중가집 딸머느리인 그는 홍씨의 마음에 가깝다. 그는 등장 인물에 대해 정신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직업정신을 심분 발휘한 그는 특히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에 관심이 깊다.

“사도세자는 일종의 강박증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엄하고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강박증에 걸린 것이죠. 옷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과 여러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1인 3역의 생활을 하면서도 책을 가까이 하는 그는 요즘 《허난설헌 연구서》 등 고문 읽기에 빠져 있다. 가을에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일도 있지만 고문에 대한 향취를 다시 맡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가을 바람 산들산들 밀려드는 이 계절에 읽을 만한 책으로 《한중록》을 추천한다. 특히 외국어 공부에 빠져 있는 젊은이에게 고문 읽기를 권한다. 고문은 읽을수록 향기로운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오원진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사터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